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2, pp.207-237
<https://doi.org/10.29212/mh.2019.112.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동서양 인문고전에 등장하는 군사지도자상에 관한 연구*

— 플라톤의 『국가』와 손자의 『손자병법』을 중심으로—

서영식**

“전투의 승패는 지휘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병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포슈 장군(Ferdinand Jean Marie Foch, 1851-1929, 1차 세계대전 프랑스 전쟁영웅)

1. 들어가는 말
2. 플라톤의 전쟁(polemos)과 수호자(phylax)론
3. 손자의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전쟁의 본질과 장수(將帥)의 자질
4. 나오는 말

* 이 논문은 2019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

1. 들어가는 말

인문학의 역사를 일별해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학의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전쟁은 죽음과 질병처럼 살아아가는 가운데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conditio humana*)으로 묘사되곤 했다. 흔히 인문학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뚜렷한 흔적이자 기록이라고 칭하듯이, 사실상 전쟁은 인류의 삶과 늘 함께 해 왔기 때문이다.¹⁾ 또한 우리는 치열한 전쟁이나 투쟁의 시기에, 오히려 인문학 담론은 평화의 시기보다 더욱 풍성해지고 깊이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도 경험을 통해 확인해 왔다.²⁾

다른 한편 현실정치 과정에서 위정자들은 적지 않은 경우, 전쟁 개시를 전후해서 공격과 침략 혹은 방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철학이나 정치사상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고대 중국의 경우 황제의 지위에 오른 권력자들은 변방의 소국을 공략할 때마다 항상 중원의 평화와 오랑캐의 징벌을 앞세웠으며, 공자(孔子) 같은 명망 있는 사상가들 역시 이른바 의전론(義戰論)을 내세우며 이념적 차원에서 침략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서양의 경우에도 로마가 제국화를 추구하고 정복전쟁을 벌일 때마다 내걸었던 주장(정의로운 전쟁, *bellum*

-
- 1) 전쟁사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 속에 기록된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은 1만 5천 여회를 상회한다고 한다. 흔히 이전과 비교해서 평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0세기 중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200여 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페인내전(1936-1939), 한국전쟁(1950-1953), 베트남전쟁(1955-1975), 나이지리아내전(1967-1970), 아프가니스탄전쟁(1978-1992), 소말리아내전(1991-현재), 걸프전(1990-1991), 유고내전(1991-2000), 이라크전쟁(2003-현재) 등을 들 수 있다.
 - 2) 서양의 역사전개 과정에서 전쟁과 철학의 상관성 내지 전쟁이 사상사에 끼친 영향을 일정 부분 보여주는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1) 춘추전국시대와 제자백가의 출현; 2)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후의 철학사상 전개; 3) 십자군전쟁과 스킨라철학의 성립; 4) 프랑스 혁명과 독일 관념론의 전개; 5) 1·2차 대전 사이 실존철학 등장; 6) 걸프전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관심 etc.

justum)이나 그리스도교의 이슬람 침략(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성전 논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전쟁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웠으며, 현실 속의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 중에서 전쟁 자체나 그에 수반되는 인간의 문제 내지 사회현상들을 주제로 한번쯤 사색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 관련 논의에서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심층적으로 논구해 온 테마 중 하나로, 군사 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에 관한 고찰을 들 수 있다. 극단적인 폭력과 광기로 가득 찬 전투현장에서 승리를 위해 무기를 앞세우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온전히 병사들의 몫이지만, 전쟁 자체의 승패는 결국 군사지도자의 인간적인 지혜와 전술적 역량 그리고 전장에서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태도에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이 글에서는 군사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조했던 플라톤과 손자의 사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에 부합하는 역동적인 군사지도자의 모습을 사상적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금번 연구의 동기는, 일차적으로는 국내 학계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내면적으로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던 ‘군사지도자의 자질과 리더십 담론’을 사상적 관점에서 탐색한다는 지적 욕구의 발현과 충족에 있지만, 나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4대강국의 사활을 건 군사적 패권경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간 이어져온 불안한 평화 속에서 우리는 국방안보와 정신무장 그리고 뛰어난 군사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3) 물론 전쟁의 승패가 오직 군사지도자의 역량이나 태도에 의해서만 판가를 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적인 측면들 이외에도 외적인 차원에서 피아간의 무기체계나 경제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통치그룹의 능력이나 동맹국과의 연대 등 정치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소논문에서 이러한 전쟁승패 요인들을 모두 검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군사지도자와 관련해서만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점차 망각해가고 있으며, 유리병처럼 깨지기 쉬운 작금의 불안한 평화상태가 아무런 대비 없이도 마냥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 관측(wishful thinking)에 막연히 젖어 있는 우리의 현실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연구에서 특별히 동서양 고대의 사상가인 플라톤과 손자를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플라톤의 정치철학은 흔히 ‘이상국가 담론’이나 ‘철인왕 통치론’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현실에서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상적이며 규범적인 통치사상이 전개된 것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플라톤의 정치철학은 전쟁을 논하지 않고서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가 살았던 대부분의 생애는 다양한 전쟁의 시기와 겹쳐 있으며, 이에 그가 대표작인 『국가』편 등에서 전개한 통치이론에서 전쟁에 관한 직간접적인 논의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서구 역사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군사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직업적 국방전문가(수호자)를 양성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사상가이며, 이후에 서양에서 등장한 다양한 전쟁이론서나 전쟁철학은 플라톤의 군사사상의 영향 하에 혹은 그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⁴⁾ 다른 한편 손자의 『손자병법』은

4) 플라톤의 수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정치학』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전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의 입장은 한편으로 국토방위에 관한 플라톤의 사유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승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궁극목적은 평화에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사상적 분위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서영식, 「서양고대철학의 전쟁이론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2, 2015, pp.237-259. 또한 일반적으로 서양을 대표하는 전쟁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클라우제비츠(Carl Philipp Gottlieb von Clausewitz, 1780-1831)의 『전쟁론』에는, 근대적 차원의 군사지휘관의 자질과 특성에 관한 논의가 <1권 1편 3장>의 ‘군사적 천재(der kriegerische Genius)’론에서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한, ‘군사지도자의 양성방법’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서고금에 걸쳐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뛰어난 군사전략서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전쟁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폭넓게 혹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나 이에 반해 손자가 소개한 군사지도자의 자질 및 양성방법에 대한 담론은 아직 집중적으로 조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플라톤과 손자의 군사사상 중에서 특히 군사지도자의 육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비교하는 연구 작업은, 세계 지성사에 영원히 기록될 고전에 속하는 동시에 사상적 차원에서 여전히 현대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사상가의 전쟁철학 중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테마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두 철학자의 바람직한 군사지도자상에 관한 사상적 고찰은,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지휘에서 가장 필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찾아보기 힘들어진 가치개념인 ‘지휘관 리더십’의 재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⁵⁾

5) 그렇지만 플라톤과 손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군사지도자상’에 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논의는 주로 어린 시절부터 오랜 기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군사적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방법에 집중된 반면에, 손자의 논의는 주로 이미 군인의 자격을 갖추고 지휘권을 인정받은 장수가 현실의 치열한 전투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의의 포인트가 다른 두 사상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군사지도자는, 플라톤이 제시한 것처럼 철저한 군사교육 시스템을 통해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현실 전투현장에서는 손자가 제안한 지휘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2. 플라톤의 전쟁(polemos)과 수호자(phylax)론⁶⁾

가. 전쟁의 특성과 수호자 교육

서양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철학자 플라톤(기원전 428/7-348/7)의 젊은 시절 대부분은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역사가 투퀴디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상 최고의 악몽과도 같은 시기로 묘사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기원전 431-401)를 관통하고 있으며,⁷⁾ 그의 대부분의 대화편에서 극중 화자로 소개되는 소크라테스(기원전 470-399)의 담론들은 적지 않은 경우 펠로폰네소스 전쟁기간 내지 전쟁 전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플라톤의 정치사상적 담론에는 사실상, 전쟁의 모순과 파국적인 결과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 끼친 해악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⁸⁾

6) 플라톤의 전쟁사상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서영식, 「서양고대철학의 전쟁이해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2, 2015, pp.237-259; 서영식, 『플라톤철학의 실천이성담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p.183-221. 이하에서 다루는 ‘플라톤의 군사지도자론’은 앞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였으며, 본고의 저술취지에 맞게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7) cf.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I 23,2.

8) 플라톤이 수호자 교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그의 사유가 스파르타식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음을 잘 알려진 바이다. 그는 『국가』편에서 뿐만 아니라 말년의 대작 『법률』편(3-4권)에서도 교육제도를 포함해서 스파르타식 국가통치 체제의 우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며, 양자 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스파르타의 정치와 제도가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에게 끼친 영향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 Stephan Schaller, *Sparta - ein idealer Staat? eine Untersuchung des Spartabildes bei Xenophon* (“Die Verfassung der Spartaner”), Platon (“Der Staat”, “Die Gesetze”) und Aristoteles (“Die Politik”) vor dem Hintergrund des historischen Kontextes und der Diskussion der besten Verfassung, Bern : Historisches Institut, 2009 다른 한편, 플라톤의 수호자 교육론을 서양고대사의 주요 사상가들의 입장과 비교하는 작업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라톤의 대표작인 『국가』편(2권)에 따르면, 본래 나라(polis)가 형성되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따라서 생명의 보존을 향한 인간 각자의 욕구와 현실적 필요가 국가 성립의 기원으로 규정된다. 최초의 국가는 의식주 해결에 만족하는 “건강한 나라(hygiēs polis)”였지만, 인구의 팽창과 더불어 인간의 욕망도 덩달아 커지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사치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초의 소박하고 건강했던 나라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염증상태의 나라(phlegmainousa polis)”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를 개선해야 할 나라의 통치자들이 오히려 부풀어 오른 국민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국을 침략하게 되고 급기야 대규모 “전쟁(polemos)”을 벌이게 된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던 폭력적인 성향을 어떠한 고민 없이 마음대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물질적인 소유와 부귀를 좇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무력에 의해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권력욕의 발현 현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플라톤은 동시대에 활동하며 전쟁의 특성과 귀결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아테네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동시에 현실적인 힘의 우위와 이에 따른 강대국의 처신을 사실상 묵인했던 투퀴디데스에 비해 이상주의자였다. 그렇지만 그는 도덕적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개인과 국가의 윤리적 태도를 통해 현실의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소박한 이상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예컨대 폴리비오스가 『역사(Historiai)』 9권(12-21장)에서 전개한 지휘관의 기량과 덕목에 대한 논의나, 페르시아 부흥군주 키루스(Cyrus, 재위 기원전 557-530경)의 군사지도자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탁월한 활동에 대한 크세노폰(기원전 430-354경)의 묘사(『키루스의 교육』)를 통해 드러난 좀 더 현실적인 통치자상과의 비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지면 관계상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하고,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지 국가 통치자는 어떻게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한 나라의 국정운영이 실패 없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전쟁을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미리 준비된 효율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전쟁은 영혼 안에서 이른바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과 기개적인 부분을 제압하고 주도권을 잡아 사실상 불필요한 욕망을 극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병적인 상황에 다름 아니지만, 이러한 병적인 상태의 개선은 마치 영혼 안에서 욕망 자체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사실상 현실감을 상실한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듯이, 전쟁을 영원히 피하거나 사라지게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플라톤은 평상시 전쟁방지를 위해 정치적·외교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동시에 전투현장의 주인공인 전사(戰士) 즉 “수호자(phylax)”들을 강건하게 양성하여 국가수호의 버팀목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수호자들이 각자의 능력을 오직 공적인 차원에서 공공선을 위해 다시 말해서 정의롭게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을 절감하여, 수호자들의 영혼이 타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플라톤에 따르면 “수호자들(phylakes)의 일(ergon)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 그 자체로 최대의 기술과 관심을 요하는 것”(374e)이며, 이들의 성향과 역할 그리고 양성방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는 정의롭고 행복한 이상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편의 궁극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절차이다.⁹⁾ 수호자는 이상국가 내의 다른 두 계층인 통치자와는 일정 정도 유사성을 갖는 반면에 생산자 계층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 즉 수호자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체를 보존하고 국민들을 “구제(sōzein)”하는 역할을 기본임무로 삼고 있는데, 성격과 기질에서는 “온순하면서도 동시에 대담”(375c)해야 하며, 또한 기본적인 특성인 “걱정적인 것에 더하여 기질 상으로 지혜를 사랑”(375e)하는 법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에 수호자는 “혈통 좋은 강아지의 성향(physis)”(375a)을 지니고 있어서 유사시에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동료 전우를 위해 용맹하고 걱정적인 자세로 전투에 임해야 하지만, 평상시에는 인격수양과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싫증내지 않음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기질을 타고나야 한다.(cf. 410c ff.) 이러한 수호자 후보자들의 기질적 특성이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유년시절부터 국가의 관리와 책임 하에 상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훌륭하고 훌륭한(kalos kagathos) 수호자”(376c)로 성장하기 위해 후보들은 유년기부터 20세 무렵까지 체육(gymnastikē), 시가(mousikē), 군사훈련, 종교교육을 바탕으로 육체와 영혼을 최대한 정화하고 단련시킬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에 맞추어 적절한 수련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수호자 양성 프로그램의 최초 단계에서는 전사와 통치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 모두 ‘수호자’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9) 『국가』편에서 전쟁 및 전사의 의미와 역할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흔치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Kleemeier는 이 작품에서 차지하는 전쟁의 의미를 추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인 통치자에 비해 별다른 논의와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수호자의 자격과 기능에 관해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U. Kleemeier, *Grundfragen einer philosophischen Theorie des Krieges : Platon - Hobbes - Clausewitz*, Berlin : Akad.-Verl., 2002, pp.51-12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자는 육체적인 능력과 용맹한 기질 그리고 애국적 자세에 더하여 지적인 소양과 현실 판단 능력(phronesis)을 겸비해야 하는데, 이상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자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이에 더하여 최고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쌓는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은 수호자 양성에 관한 담론을 마친 다음 수호자와 철인통치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역할을 세분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지만,¹⁰⁾ 이러한 구분 후에도 철인통치자의 군사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¹¹⁾ 즉 철인왕의 자리는 “애지활동(philosophia)”으로 지칭되는 지적인 능력과 국가를 수호하는 전쟁 수행능력에서 동시에 최고의 경지임이 입증된 사람에게만 허용되어야 한다. 전쟁기술은 철학적 자질과 더불어 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며, 이 두 가지 능력을 항상 발휘할 준비가 된 수호자와 통치자 계층은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단절되거나 대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다.

‘철인왕’ 양성과정에 관한 묘사에 따르면, 약 20세까지 수호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년들은 이후 30세까지 10년간 이른바 “예비교육”(propaideia)을 받게 되는데 이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은 산술, 기하학, 천문학 등 추상적 학문과 과학기술이 중심이 된다.¹²⁾ 철인왕 후보자들이 장기간 동안 이러한 교육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추상적 학문들이 감각적 대상 배후에 존재하는

10) 수호자 전사계층과 철인 통치자 사이의 세밀한 구분에 대해서는 『국가』편 3-4권(414b, 428d etc.) 참고.

11) “즉 장차 완벽하게 경영될 나라에 있어서는 (...) 군왕들은 이들 가운데서 철학(지혜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훌륭한 자들로 드러난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국가』편 543a

12) 수호자 양성과정을 거친 후 선발된 철인왕 후보들 중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각 단계에서 낙오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며, 이 사람들은 전투임무 수행을 비롯해서 통치 이외의 국정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편 540a.

것으로 간주되는 존재와 진리를 파악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지만(cf. 525c ff., 527b ff.), 동시에 이러한 학문들은 유사시 현실 전투상황에서 직접 활용되는 전술교육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cf. 526d). 즉 플라톤의 입장에서 볼 때 “생성(genesis)에서 벗어나서 존재(본질: ousia)를 포착”(525b)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추상적 학문이나 과학기술은, 철인왕 후보자들이 유사시를 대비한 군사 지식의 일환으로도 반드시 습득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예비교육 다음 과정으로 철인왕 후보들은 약 5년 간에 걸친 철학적 사고훈련(이데아에 대한 인식)을 마친 후에, 15년 정도 현실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국가통치에 필요한 실천적 지혜를 충분히 배양해야 하는데, 플라톤은 이 대목에서도 국가수호자로서의 전쟁지휘와 리더로서의 인내력 및 유사시 희생정신 테스트를 특별히 강조하였다.(cf. 539e)

나. 수호자의 자기희생과 진정한 용기

플라톤은 국가가 타락하고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나친 “부와 빈곤”(421d)에 있음을 절감하였다. 즉 지나친 부는 부자들 사이에 “사치와 게으름 및 변혁을 초래”하고, 역으로 지나친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의 “노예근성과 기량의 저하를 초래”(422a)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아테네처럼 부자와 빈자의 경제적인 능력 차이가 극단적인 나라는 “한 나라(mia polis)”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며 언제나 상대방을 봉괴시키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수많은 나라”에 불과하다. 결국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배층이 경제문제에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적 태도를 지녔는가와 직결되며, 이에 경제정의의 실현은 “나라를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나라 안에서 “최대선”(462a)

을 구현하는 첩경인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은 전쟁의 근원적인 발생원인인 경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국민들의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모순점을 바로잡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내면의 욕망을 조절하여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도록 계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연관해서 플라톤은 국가운영과 수호의 양대 축인 통치자와 수호자 계층이 자신들의 애국심을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 차원의 무소유와 절제의 삶(사유재산·처자 소유금지, 공동식사와 공동생활 etc.)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즉 플라톤이 제시한, 한 국가 안에서 경제정 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해결책은 바로, 통치자와 수호자 계층에게는 사유재산과 가족공동체 소유가 일체 허용되지 않은 채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그의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좀 더 완화해서 해석하면 이것은 결국 현대적 의미의 ‘정경분리원칙’이나 경제문제와 관련된 지배계층의 윤리적 솔선수범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의 관찰에 따르면 통치(수호)계층에게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권력과 힘(무력)을 사적인 차원의 욕구충족에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개인적인 욕망을 억누름으로써 내면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큰 애착을 갖게 마련인 가족구성과 재산형성에서 초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치자 그룹이 삶 속에서 극단적으로 욕망을 억제하도록 강요받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플라톤은 통치계층이 일상 속에서 사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극복하기를 반복함으로써, 가족이나 사유재산의 소유보다 훨씬 더 큰 욕망의 대상인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남용하는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치자들에게 강요된 욕망의 억제, 그들의 영혼 속에서 더 본질적인 차원의 절제력이 생성되도록 유도하는 훈련의 일환이었던 것이다.¹³⁾

플라톤이 수호자계층의 자질과 역할을 논하면서 강조했던 또 다른 측면은, 수호자가 자신의 기본 덕목으로 규정된 “용기(andreia)”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전과 그런 능력”(430b)¹⁴⁾으로 규정되는데, 여기서 두려워할 것은 전사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시선일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전장에서의 위협과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플라톤은, 수호자의 용기는 단순히 전투현장에서의 과단성과 임진무퇴의 자세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운 전투상황 속에서도 영혼의 분열과 파괴를 스스로 방지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진정한 용기는 독립적인 영혼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정의’, ‘절제’, ‘지혜’와 같은 덕목들(이른바 4주덕)과 연관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전장에서 승리하려는 자는 우선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절제를 생활화함으로써 모범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용기가 갖추어진 사람만이 전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평상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

13) 플라톤은 말년의 대작인 『법률』(744cd)에서는 통치자와 수호자 계층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개인의 사유재산 축적의 한도는 4배 이내로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국정운영과 국가수호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경제문제에 있어서 절제와 안분지족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용기에 대한 유사한 규정이 초기 대화편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cf. 『라케스』편 194e f.; 『프로타고라스』편 360d.

하지 앎으로써 자신들을 전사로 양육시켜주고 이제는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 즉 무력에 의한 국가 전복기도(stasis)와 이를 통한 권력찬탈에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3. 손자의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전쟁의 본질과 장수(將帥)의 자질

가. 전쟁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대한 통찰

주지하듯이 손자(孫子, 본명 손무(孫武) 기원전 544?-496?)¹⁶⁾의

15) 나아가 플라톤은 『국가』편 5권(469b-471c)에서 전쟁 와중에 수호자(전사)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원칙(일종의 전시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필요 이상으로 인명을 살상하지 말 것, ②전쟁에서 패한 그리스인을 노예로 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지 말 것, ③전몰자의 약탈은 금하며, 장례식을 허용할 것, ④신전에는 약탈한 물건을 제물로 바치지 말 것, ⑤토지 초토화 작전을 금하며, 곡식의 약탈도 적국의 영토에 한정할 것, ⑥폴리스 간의 ‘내전(stasis)’은 엄격히 금지하며, 이방민족과의 대외전쟁(polemos)만을 정당하게 수행할 것, ⑦어쩔 수 없이 내전이 발생할 경우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싸움보다는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 플라톤이 제안한 수호자의 전쟁 중 행동원칙은, 그가 전쟁을 단지 적을 억압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폭력수단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 목표인 공존과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거처야하는 일종의 필요악으로 이해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전사들이 전투 중에도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혼란의 상황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 된다. 서영식, 『플라톤철학의 실천이성담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194f.

16) 손자는 제(齊)나라 장수 집안 출신으로, 강국에서의 출세를 포기하고 오자서(伍子胥)의 추천으로 신흥 소국인 오나라의 합려(闔閭)에게 병서를 바치고 장수가 되어 크게 활약한 인물이다. 손자는 29세 무렵 오왕 합려와의 조우 시 이미 중국 최초의 병서인 『손자병법』 13편을 완성한 상태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는 춘추시대 말기에 10여 년 동안 은둔하며 자신의 경험과 당대의 전쟁사례들을 분석하고 기존의 병서들을 종합하여 집필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자에 대한 역사적

『손자병법』은 동서고금에 걸쳐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最古) 가장 뛰어난(最高) 군사전략서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이 작품은 세계 정치사상의 고전으로,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조직관리를 위한 처세서로, 도가(道家)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제자백가(諸子百家) 사상을 총체적으로 융합시킨 철학서¹⁷⁾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손자병법』은 첫 번째 시계편(始計篇)부터 마지막 용간편(用間篇)에 이르기까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군사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이 작품의 총론에 해당되며 군사학의 기초이론과 전략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1편에서 우선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손자는 1편에서 전쟁과 국가 존망의 상관성을 통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서두에서 “전쟁이란 국가의 중대사이며, 백성의 생사를 가늠하는 마당이고, 나라의 존망을 결정짓는 큰일이니 깊이 삼가며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¹⁸⁾고 말한 점에서 확인할

기록 중 잘 알려진 내용은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손자(孫子)·오기(吳起) 열전」을 들 수 있다. 사실 손자에 관한 후대의 기록들은 워낙 오래되었고 부정확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여전히 적지 않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7) 일반적으로 『손자병법』에는 노자의 무위(無爲)정치사상과 한비자의 절대권력론(絶對權力論) 그리고 유가의 덕론(德論)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손자병법>에는 노자의 무위사상과 겸허의 미학이 담겨 있으며, 한비자가 말하는 절대 권력자인 군주의 처세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그리고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지휘관, 즉 장수의 자질을 논하면서 오덕(오덕)에 대해 이야기 한 부분은 유가의 논점과도 접맥되어 있다.” 김원중, 「해제 - 싸움에 신중하되 싸우지 않고 이겨라」, (실린 곳: 『손자병법』, 휴머니스트, 2017, p.32) 그밖에도 『손자병법』에 내포된 철학사상 내지 여타 사조(思潮)와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예컨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김성우, 「손자(孫子)와 노자(老子)사상 비교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73-3(2017), pp.29-41; 전명용·송용호, 「<손자병법>·<노자>의 동질성과 그 현실적 운용 연구」, 『중국학연구』, 80(2017), pp.229-261.
- 18) 『손자병법』 원문의 번역은 현존 한글 번역들 중에서 가장 잘된 것으로 판단된 다음의 두 번역서에 따랐으며, 매 인용의 경우 내용과 문맥을 고려해서 혼용하였다. 손자, 『손자병법』, 김원중 옮김, 휴머니스트, 2017; 신동준 역주, 『무경집서1 : 손자병법·오자병법』, 역사의아침, 2017.

수 있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한순간에 좌우할 수 있는 중대사이기에 매사를 시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의 함의는 크게 두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서 전쟁을 개시해야 하며 한 번 전쟁을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에, 전쟁과 그 과정 속의 개별 전투에 임하기 전에는 항시 객관적인 시각에서 형세를 명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한 후 엄격하고 진지한 태도로 개전시기를 선택해야 한다(萬全之計), 즉 전쟁의 국면이 확실히 아군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할 경우에만 전투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¹⁹⁾ 두 번째는, 최초의 전투 목표는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안정된 역량을 기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전쟁 초반의 첫 번째 전투는 군사지휘관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역량도 모자라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첫 전투의 목표가 사전 준비태세와 군대의 전반적인 역량에 비해 너무 크면 속전속결이 어렵고 적의 역공을 받기도 쉽다. 이에 장수는 개전 초반에는 작은 성공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경험과 실력을 축적해야만 점차 더욱 크고 강력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19) 『손자병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승리를 쟁취한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적의 전황과 지형과 인민 등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확실해진 뒤에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글에서 재인용하였다. 야경유·장휘, 『마오쩌둥, 孫子에게 길을 묻다』, 전병욱 역, 홍익출판사, 2004, p.49.

20) 이와 관련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독일군 전차군단 사령관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적국의 수장인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로부터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롬멜 장군(Erwin Johannes Eugen Rommel, 1891-1944)은 최초 사령관 부임시 자신의 군대보다 약한 적을 공격하여 지속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에 용기와 자신감을 얻은 독일군은 이후 자신보다 강한 적군을 만나서도 상당기간 동안 불패의 신화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명장(名將)의 다섯 가지 조건

이처럼 전쟁에서의 신중한 판단과 처신의 중요성을 자각했던 손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다섯 가지 기본요소(五事)²¹⁾를 제시하였는데²²⁾, 이 중에서 네 번째로 장수의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말하였으며, 이 또한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묘사하였다.

장수에게는 우선 지혜(智)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지혜로운 군사지휘자만이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싸울 때와 후퇴할 때를 정확히 결정함으로써 승리를 견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병사를 사지(死地)에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는 전쟁의 본질은 본래 적을 속이는데 있다고 단언하였는바,²³⁾ 이러한 관점에

21) 손자가 제시한 ‘오사(五事)’는 다음과 같다. 1) 병도(兵道) - 정치적 차원에서 군주와 백성 사이의 신망; 2) 천시(天時) - 밤낮의 날씨, 사계절 변화 등 시간적 조건; 3) 지리(地理) - 원근, 험이, 광협, 생지와 사지 등 지리 조건; 4) 장수(將帥) - 지혜, 신의, 인애, 용기, 엄정; 5) 법제(法制) - 군대의 편제와 운용, 장수와 군관의 관리, 군수물자의 조달과 공급 등.

22)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에는 오사(五事)이외에도 칠계(七計)와 궤도(詭道)가 제시되고 있다. “五事は 전략의 주체자인知己이며, 자기의 능력을 검토하는 치내의 요소이고, 七計는 지기와 지피 즉 치외의 양면을 비교 검토하는 치외요소이며, 詭道는 五事와 七計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전략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동적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조정하는 것, 즉 응변을 가리킨다.” 김현기, 『이순신제독의 전략·전술과 손자병법』, 『이순신연구논총』, 4(2005) p.3f.

23) “전쟁(兵)은 속이는 도(道)이다. 능력이 있는데 적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군대를) 쓰되 적에게는 (군대를)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가까운 곳을 노리면서 적에게는 먼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먼 곳을 노리면서 적에게는 가까운 곳을 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롭게 하면서 적을 피어내고(내부를) 어지럽게 하여 적을 습격한다. (적이) 충실하면 적을 방비하고, (적이) 강하면 적을 피하고, (적이) 분노하면 그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적이) 낮추려 들면 적을 교만에 빠지게 하고, (적이) 편안해하면 그들을 수고롭게 만들고, (적이) 친하게 지내면 그들을 이간질하라. 그들이 방비하지 않은 곳을 공격하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출격하라. 이것이 병가에서 말하는 승리의 이치이다. 이는 너무 오묘한 까닭에 어떤 고정된 이론으로 정립해 미리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 (김원중 역, p.55f. 이하 번역문 인용에서 ‘밑줄 강조’는 필자의 것임)

서 보면 장수는 싸움을 벌일 때마다 적군을 기만하고 속이며 나아가 적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虛虛實實), 아군과 똑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할 줄 아는 적군을 속이거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자칫 잘못했다가는 적에게 속내를 간파당해 역공 당할 수도 있다. 이에 장수의 지혜란 일차적으로 적이 아군의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도록 깊이 감추고 숨기는 자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실제 전장상황에 부합할 것이다. 나아가 장수의 지혜는 단순히 병법서를 통해 전쟁에 관한 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으며, 손자가 강조했듯이 산전(山戰), 수전(水戰), 택전(澤戰), 육전(陸戰) 등 다양한 전투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지형이나 병사의 사기 등 전장상황 전반에 관한 직관적인 통찰력을 갖춘 상태를 뜻한다.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임기응변(臨機應變)과 권모술수(權謀術數)를 통해 적군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도록 판단력과 실행력이 겸비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손자는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가 특히 강조하는 점은, 장수는 “전쟁은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만들어 놓고 확인하러 가는 것”(先勝求戰)이라는 점을 통찰하고 있어야 하며, 개전 이후 군사행동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速戰速決) 적의 대응이나 역습이 불가능하도록 전장상황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개시 전 최대한의 준비와 신속 정확한 작전지휘 능력 역시 장수가 지녀야 할 지혜의 핵심에 포함된다.²⁴⁾

24) “(...) 군사를 동원해 전쟁을 치를 때는 반드시 신속히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싸우는 날이 길어지면 군사가 피로에 지쳐 예기가 꺾이고, 적의 성을 칠 때 병력 소모도 가장 많다. 군대가 나라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폭사가 길어지면 국가재정이 부족해진다. 무릇 군사가 피로에 지쳐 예기가 꺾이고, 병력 소모가 많아져 물자가 바닥나면 이웃나라가 빈틈을 타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지도를 자랑하는 자일지라도 뒷수습을 잘할 수 없다. 병서에 비록 졸속이기는 하나 속전속결로 승리를 거둔 사례만 나오는 이유다. 나는 교묘한 계책을 구하기 위해 전

다음으로 손자는 장수에 대한 부하들의 믿음(信)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신뢰는 치병(治兵)의 으뜸 원칙으로 이는 병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군대의 리더가 전략전술상 불필요한데도 오직 개인의 명예를 위해 자신들을 전투상황으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즉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손자는 모공편(謨攻篇)에서, “비록 백번 싸워 백번 이기더라도 그것은 결코 최상의 계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²⁵⁾ 싸움이 반복될수록 승리는 부분적으로 획득할 수 있을지언정 부하들의 불필요한 희생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수는 평소 휘하의 부하나 병사를 사적인 명예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멀리해야 한다. 또한 장수는 전투현장 뿐만 아니라 평소 병영 내 일상에서도 부하들과 동고동락(同苦同樂) 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희생하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부하의 입장에서 리더가 자신들과 조직을 위해 헌신한다는 믿음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군사지도자가 진정으로 부하의 신뢰를 얻고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한다면 손자가 지형(地形)편에서 언급한 바, “병사를 어린아이처럼 보살피주면 함께 깊은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 수 있고, 병사를 자식처럼 아껴주면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가슴 속

쟁을 오래 끈 경우를 본적이 없다. 무릇 전쟁을 오래 끌어 나라에 이익이 된 적이 없다. 용병의 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용병의 이로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손자병법』 작전편(作戰篇) (신동준 역, p.115)

- 25) “손자가 말했다. 용병의 기본이치를 말하면 적국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전국(全國)이 최상이고, 적국을 무찔러 항복을 받아내는 파국(破局)은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적의 군단(軍團)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고, 무찌르는 것은 차선이다. 적의 여단(旅團)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고, 무찌르는 것은 차선이다. 적의 졸대(卒隊)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고, 무찌르는 것은 차선이다. 적의 오대(伍隊)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고, 무찌르는 것은 차선이다.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백전백승은 결코 최상의 계책이 될 수 없다. 싸우지 않고도 굴복시키는 부전굴인(不戰屈人)이야말로 최상의 계책에 해당한다.”(신동준 역, p.137f.)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장수는 부하들에게 평소 자애롭고 인자(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리더의 어진 태도는 조직의 활성화와 직결되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어질고 인자함은 단순히 장수가 부하의 말이나 행동을 무조건 받아주는 안이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하를 일체의 선입견이나 속단을 통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평가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능력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중용하려는 자세를 뜻한다. 나아가 장수가 부하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항시 상대방인 부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태도(易地思之)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인간은 결코 나귀처럼 당근과 채찍만 가지고 마음대로 길들이고 부려먹거나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병사들이 비록 군 내부에서 지위는 낮고 역할은 미미할지언정 장수와 동일한 생각과 느낌을 가진 유정적(有情的) 존재임,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들임을 망각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 경우에만 리더(장수)와 팔로워(병사) 간에 진솔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손자에 따르면 장수는 전장의 지휘자로서 남다른 용기(勇)가 있어야 한다. 이때 용기란 일차적으로 위험한 전투현장에서 과단성과 굳건한 자세를 지님으로써 강력한 적군 앞에서도 위축되어 전의를 상실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주어진 전투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의미하겠지만, 지나치게 단순하고 맹목적인 전투의지는 상황에 따라 장수 자신과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장수는 적에게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전장의 실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공격과 방어 혹은 전략상 후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²⁶⁾ 이에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²⁷⁾ 다시 말해서 장수의 용기는 사태에 즉해서 힘껏 싸워야 할 때와 한순간의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회피해야 할 때에 대한 냉철한 구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자는 장수의 자질로서 엄격(嚴)함을 제시하였다. 장수는 평상시 부대통솔이나 긴박한 전투지휘 중에 그리고 전투 이후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시 정해진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명확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만 부하들이 상관을 신뢰하고 용기를 다해 전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다. 세(勢)의 형성과 군사지도자의 전략적 판단능력²⁹⁾

손자에 따르면 전쟁에서는 병력과 무기 등 전력상의 객관적인 우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사지도자가 특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전투현장과 전쟁 자체의 전반적인 분위기 즉 ‘세(勢)’의

26) “그러므로 용병의 원칙은 (아군이) 열 배면 적을 포위하고, 다섯 배면 적을 공격하며, 두 배면 적을 분산시킨다. 대적할 만하면 적을 맞아 싸우고, (적보다 병력이) 적으면 적으로부터 달아나며, (적의 병력과) 대적할 만하지 못하면 적을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작고 약한 군대가 적을 맞아 견고하게 수비한다면 강대한 적의 포로가 되고 만다.” 『손자병법』 모공편(謨攻篇) (김원중 역, p.100)

27) “승리를 (미리) 아는 데는 다섯 가지가 있다. 싸워야 할 때를 아는 것과 싸워서 안 될 때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 병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용병법을 아는 자는 승리한다. 위(장수)와 아래(병사)가 한마음이 되면 승리한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준비하지 못한 적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한다.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조종하려고 들지 않으면 승리한다.” 『손자병법』 모공편(謨攻篇) (김원중 역, p.107)

2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서, 『삼국지(三國志)』에 등장하는 제갈공명(諸葛孔明)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들 수 있다.

29) 전쟁에서의 세(勢)에 관한 손자의 논의는 『손자병법』 5편에 함축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저술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명제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세란 아군과 적군 사이의 우열관계를 지칭하며, 세를 확보하는 것은 손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최선의 승리 방법 즉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不戰勝) 첩경에 해당된다. 따라서 장수가 전쟁이나 특정 전투현장에서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상의 객관적인 조건들, 예컨대 병력, 무기, 군량 등의 직접적인 군사력 확보에 노력해야 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군의 핵심정보 파악, 기만전술 활용, 공격과 방어 시기선택 등 전장에서 필요한 동물적 수준의 직관과 냉철한 계산(판단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손자병법』과 더불어 각각 동서양을 대표하는 전쟁이론서로 평가받고 있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는, 전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논의³⁰⁾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서술의 주안점은 현장 전투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전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강화된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손자병법』은 전쟁담론을 개별 전투나 작전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전략의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³¹⁾ 전쟁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사이기에 전

30) 잘 알려져 있듯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한 “정치적 연속”으로 규정하였다. 전투현장의 주인공인 군사지휘관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전쟁 자체를 결정하는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클라우제비츠의 사유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군대의 지휘관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실제 전투현장에서 최소한의 병력과 장비손실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승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쟁을 지속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 중지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 종전을 이끌어내야 하는지와 같이 전쟁 자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군인이 아닌 정치가의 몫이 된다. 따라서 정치가는 잔혹한 폭력으로 열룩진 전쟁 상황 속에서조차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서영식, 「서양근대의 전쟁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86, 2016, p.177.

31) 손자와 클라우제비츠 전쟁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 이진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겨야 한다』, 흐름출판, 2015, pp.344-363.

쟁에 관한 논의는 전쟁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전후의 사안들을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³²⁾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일단 전쟁을 개시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장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를 형성하여 자신의 의도와 방식대로 전장을 지휘하는 능력은 전쟁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다.

세란 결코 전투상황이 개시된 후에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장수는 전투개시 이전에 이미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를 만들어 놓아야 하며 실제 전투에서는 준비된 형세를 이용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적을 빠르고 거칠게 몰아세워 궤멸시켜야 한다. 이에 손자는 전투현장에서 세의 모습과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여울이 급하고 거세게 흐르면서 무거운 돌까지 뜨게 만드는 것을 기세(氣勢)라고 한다. 맹금(猛禽)이 질풍같이 달려가 다른 새를 잡아 죽이는 것을 절도(節度)라고 한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가 맹렬하다. 절도 또한 극히 간명하다. 거센 기세는 쇠뇌의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듯하고, 간명한 절도는 당긴 화살이 마침내 시위를 떠나는 듯하다. (...)”³³⁾

이처럼 세를 확보하고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손자병법』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논지라 할 수 있는 부전승의 지혜 역시 이러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세를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손자에 따르면 군사지도자는 거시적이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전쟁 자체를 조망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전인적 역량을 키우는데 매진해야 하며, 실전에 즉해서는 미리 철저히 준비한

32) 이러한 차원에서 손자의 전쟁관은 “유기체적 전쟁관”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권, 『손자의 전쟁관에 대한 철학적 고찰 - 自然과 勢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36(2012), pp.145.

33) 『손자병법』 세편(勢篇) (신동준 역, p.188f.)

세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을 타격함으로써 단번에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승리의 관건을 전세에서 찾을 뿐, 일부 장병의 용맹에 기대지 않는다. 인재를 선발해 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유리한 전세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요체이다. 전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자는 병사를 지휘하는 것이 마티 통나무나 돌을 굴리는 것처럼 자유자재다. 통나무나 돌은 성질상 안정된 곳에 두면 가만히 있지만 비탈지고 위태로운 곳에 두면 쉽게 움직인다. 모난 나무와 돌은 정지하고, 둥근 나무나 돌은 저절로 가게 마련이다. 전쟁을 잘하는 자가 이끄는 전세를 보면 마치 천길 높은 산 위에서 둥근 돌을 굴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병세(兵勢)다.”³⁴⁾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손자에 따르면 군사지도자의 자격과 덕목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용맹함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 밖에도 전쟁 자체나 개별 전장상황에 즉해서 세를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혜를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 군대조직 내에서 상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이처럼 군사지도자가 용장(勇將)의 단계를 넘어 지장(智將)으로 성장하고 마지막 단계인 덕장(德將)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사지식과 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능력 이외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내면적 수양을 바탕으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文武兼全)을 『손자병법』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4) 『손자병법』 세편(勢篇) (신동준 역, p.191f.)

4. 나오는 말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묘사한 전쟁의 특성과 수호자 교육 및 수호자의 자기희생과 진정한 용기에 대해 살펴 보았고, 후반부에서는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서술한 전쟁의 본질과 장수(將帥)의 다섯 가지 자질 및 세(勢)의 형성과 연관된 군사지도자의 전략적 판단능력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가』와 『손자병법』은 동서양의 대표적인 인문고전 그룹에 속하지만, 저자들의 집필 목적이 서로 다르고 저술의 시대적·문화적 배경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작품의 내용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저술에서 소개된 군사지도자의 특성과 자격 및 기대역할과 관련해서 나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6.25 전쟁 이후 여전히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 동향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짚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플라톤과 손자 모두 군사지도자의 자격을 논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전사로서의 용맹함이나 전문적 수준의 전장 지휘능력만을 언급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각자의 무력을 오직 공적인 차원에서 국가방위와 국민보호이라는 공공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언제나 사적인 욕망으로 향할 수 있는 영혼 내면의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인문적 차원의 정신교육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른 한편 현실 제도적 차원에서도 수호자는 사유재산 소유와 가족 구성을 포기하는 등 무

소유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애국심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되었는데, 이 역시 수호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행복감보다 훨씬 큰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력에의 욕망을 사전에 억제하고 근본적인 수준의 영혼의 절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초극적 정신 훈련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최초로 선발된 수호자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도달하게 되는 통치그룹(철인왕)은 역할과 지위에 걸맞게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인격적으로도 고매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언제든 현실 국정문제의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플라톤은 특히 국가의 통치자들이 당시 일상화되다시피 했던 전쟁 수행능력을 철저히 배양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손자 역시 장수의 자질을 논하면서 단순히 전장에서의 용맹과 임전무퇴 정신을 강조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혜, 상하 간의 믿음과 부하를 향한 인자한 태도와 같이 장기간의 지적인 연마와 자기성찰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 능력이 성공적인 군사지도자의 전제조건임을 거듭 주장하였다.

21세기 현재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작금의 군대지휘에서는 희귀하기까지 한 가치개념이 바로 지도자의 철저한 봉사와 희생정신에 기반한 리더십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개선된 군사지도자상을 정립하는 작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정치적·군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동서양 인문고전 속의 군사지도자상을 새롭게 음미해보고, 그 안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현대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작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19. 6. 23, 심사수정일 : 2019. 7. 27, 게재확정일 : 2019. 8. 9)

주제어 : 군사지도자, 리더십, 인문고전, 플라톤(국가), 손자(손자방법)

<참고 문헌>

- 강상구,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 흐름출판, 2017.
- 김성우, 「손자(孫子)와 노자(老子)사상 비교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73-3(2017), pp.29-41.
- 김학노, 「형세 : 정치학적 개념 탐구」, 『한국정치학회보』, 52-1(2018), pp.229-256.
- 김현기, 「이순신 제독의 전략·전술과 손자병법」, 『이순신연구논총』, 4(2005), pp.1-36.
- 박재희, 『박재희의 손자병법과 21세기』, EBS, 2002.(동영상자료)
- 서영식, 「서양철학의 전쟁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동서철학연구』, 78, 2015, pp.627-649.
- 서영식, 「서양고대철학의 전쟁이해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82, 2015, pp.237-259.
- 서영식, 「서양근대의 전쟁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86, 2016, pp.167-191.
- 서영식, 『플라톤철학의 실천이성담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신동준 역주, 『무경십서1 : 손자병법·오자병법』, 역사의아침, 2017.
- 손자, 『손자병법』, 김원중 옮김, 휴머니스트, 2017.
- 야경유·장휘, 『마오쩌둥, 孫子에게 길을 묻다』, 전병욱 역, 홍익출판사, 2004.
- 양순자, 「중국 고대의 勢 개념 : 『孫子兵法』, 『慎子逸文』, 『韓非子』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36(2012), pp.157-183.
- 이권, 「손자의 전쟁관에 대한 철학적 고찰 - 自然과 勢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36(2012), pp.125-155.
- 이진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겨야 한다』, 흐름출판, 2015.

전명용·송용호, 「<손자병법>·<노자>의 동질성과 그 현실적 운용 연구」, 『중국학연구』, 80(2017), pp.229-261.

투퀴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천병희 역, 숲, 2011.

플라톤, 『국가·정체』, 박종현 역, 서광사, 2004.

플라톤, 『법률』, 박종현 역, 서광사, 2009.

Baracchi, Claudia, Of myth, life, and war in Plato's Republic, Bloomington, Ind. ;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Blinne, Jens, Krieg : philosophische Positionen von Platon bis Foucault, Bonn : DenkMal Verl, 2005.

Craig, Leon Harold, The war lover : a study of Plato's Republic, Toronto ; London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4.

Erlar, Michael, "Ursachenanalyse von Krieg und Frieden bei Platon und in der hellenistischen Philosophie", in, Andreas Holzem(ed.), Krieg und Christentum - Religiöse Gewalttheorien in der Kriegserfahrung des Westens, Frank, Jill, "Wages of War - On Judgment in Plato's Republic", in, Political Theory, 35, August, 2007, pp.443-467.

Kleemeier, Ulrike, Grundfragen einer philosophischen Theorie des Krieges : Platon - Hobbes - Clausewitz, Berlin : Akad.-Verl., 2002.

Kochin, Michael S., "War, Class, and Justice in Plato's Republic", in,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53, No. 2(Dec. 1999), pp.403-423.

Ricken, Friedo, Platon und Aristoteles über Krieg und Frieden, Barmbüttel : Inst. für Theologie u. Frieden, 1988. (Beiträge zur Friedensethik)

- Sob, Brigitte, "Krieg und Gerechtigkeit in Platons Politeia", in, Sob, Brigitte (ed.), Brennpunkte politischer und militärischer Ethik – Eine Einführung : Band 1. Ideengeschichtliche Entwürfe – Teil 1. Altertum, Mittelalter und Beginn der Neuzeit, Wien : Landesverteidigungsakademie, 2007, pp.59–72.
- Spiegel, Nathan, War and peace in classical Greek literature, Jerusalem : Mount Scopus Publ, 1990.
- Syse, Henrik, "Plato: the necessity of war, the quest for peace", in, Journal of military ethics, Bd. 1 (2002), pp.36–44.
- Syse, Henrik, "Plato, Thucydides, and the education of Alcibiades", in, Journal of military ethics, Bd. 5 (2006), pp.290–302.
- Syse, Henrik, "The Platonic Roots of Just War Doctrine: A Reading of Plato's Republic", in, Diametros nr. 23 (2010), pp.104–123.

<Abstract>

A Study of the Ideal Images for Military Leadership
in the Eastern and Western Humanities Classics
- With the Focus on Plato's Republic and Sun Tzu's The Art of War

Suh, Young-sik

In the long history of the western and eastern philosophy, war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famous themes. I would like to clearly explain what is the military leadership theory of Plato(republic) and Sun Tzu(the art of war), and why the study of military leadership through humanities classics is so important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the time period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eatured by convergence and Integration.

As well known, Plato's *Republi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estern classics in the political theory. According to Plato, war cannot be regarded as the aim of nation(polis) ruling, but the attack of enemies from the outside should be overcome. In this work we can also find the reason and method of how to prepare and fight against the enemies during the war period. According to Plato war is de facto unavoidable in the human world, because it is rooted in the nature of human being. We should exactly understand that the effective education of guardians is the best way to prepare and overcome the war.

In the long history of the ancient china, for example, the period of the spring and autumn and the warring states, war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subjects through the empire ruling. But war is not a last goal of political acts, but

just a quick and safe way to the peace and empire organization. Sun Tzu's world-famous military method work called "the art of war" shows us how to win field fighting and overcome dangerous situations during the war period. He emphasizes that the best way to the victory in the war field is not the number of arms or soldiers, but the authentic power and field leadership of the officer group. So, the long and proper education and hard training of the officer group(the military guardians) have been emphasized.

Key Words : Military Leader, Leadership, Humanities Classics, Plato(Republic),
Sun Tzu (The Art of War)

